

연구논문

죽음 현저성, 문화적 세계관 위협 및 집단소속이 기부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슬비** 석동헌***

본 연구에서는 세 실험을 통해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TMT)의 핵심 개념인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위협이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동인 공격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죽음 현저성과 기부 수혜자의 집단 소속(내집단 vs. 외집단)이 대표적인 친사회적 행동인 기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실험 1 그리고 실험 1의 절차와 종속변인을 개선한 실험 2에서, 2(죽음 현저성: 죽음/치통)×2(문화적 세계관: 위협/일치) 피험자 간 설계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행동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이 효과가 죽음 현저성 변인과 상호작용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실험 3에서는 2(죽음 현저성: 죽음/치통)×2(기부 수혜자의 집단소속: 내집단/외집단) 피험자 간 설계를 통해 기부행동에 대한 죽음 현저성과 집단소속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했다. 즉, 통제조건(치통조건)에서 외집단 수혜자에 비해 내집단 수혜자에게 유의하게 높은 금액을 기부했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현저해진 상황에서는 내집단 수혜자에 대한 기부금액이 오히려 감소하여 내외집단 간의 기부금액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현저해짐에 따라 오히려 내집단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험 3의 결과는 유사한 실험설계를 통해 미국인을 대상으로 기부행동을 살펴보았던 Jonas 등(2002)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였고, 논의에서 이 상반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두 설명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설명은 규범(norm)에 의한 설명으로, 도움행동에 대한 규범이 약할 경우에는 죽음 현저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타인을 돕기 보다는 자신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두 번째 설명은 불안정감(feelings of insecurity)에 의한 설명으로, 죽음 현저성이 상승함에 따라 높아진 불안정감이 돈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행동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함축점,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공포관리이론, 죽음 현저성, 문화적 세계관 위협, 집단소속, 기부, 공격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이며, 이슬비(2020)의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하고 재정리한 것임.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95sulbee@naver.com. 주저자.

***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sdh@daegu.ac.kr. 교신저자.

<https://doi.org/10.33071/ssricb.44.1.202003.145>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예들에 자주 노출되는데, 뉴스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죽음,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 자살로 인한 죽음, 살인 사건으로 인한 죽음 등을 접하기도 하고 장례식장을 방문하거나 누군가의 사고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인간에게 행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의 세계관과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예.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 후의 조선인 학살), 반대로 2001년 9.11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미국 사람들이 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등 생활 태도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처럼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박지선·최인철, 2002, p. 85에서 재인용).

이처럼 인간이 죽음 즉 본인의 유한성에 대해 공포를 느낌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사회심리학의 이론이 바로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TMT; Greenberg, Pyszczynski, and Solomon, 1986)이다. 공포관리이론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관리할 수 있는 심리적 대처 방안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적 능력은 자신의 죽음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은 공포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는 문화적 세계관(cultural worldview)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self-esteem)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문화적 불안 완충제(cultural anxiety buffer)에 의해 조절되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Greenberg and Arndt, 2012).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 세계관은 개인이 속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믿음 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Pyszczynski, Solomon, and Greenberg 2015). 이러한 믿음 체계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같은 삶에 대한 기본적 물음과 가치 있는 행동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해준다. 즉, 문화적 세계관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믿음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전반적인 가치감(한덕용 등, 2005)으로 공포관리이론에서는 문화적 세계관에서 규정한 가치 기준에 자신이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Pyszczynski et al., 2015)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문화적 가치 기준을 잘 지킴으로써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문화적 세계관이 규정한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자신이 죽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죽은 뒤에도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가치와 체제는 영원할 것이

라는 상징적 불멸을 얻을 수 있게끔 한다. 이는 자신의 육체는 없어져도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할 것이며 죽어서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렸을 때 집단 혹은 문화에 속하려고 더 노력한다. 사람들은 집단에 속함으로써 상징적 불멸을 얻게 되는데 이를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신념이나 가치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하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결국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문화적 불안 완충제의 필요성을 높여,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노력하도록 이끌고 또 문화적 맥락 안에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획득하게끔 이끈다(김영욱·이현승, 2015; 박지선·최인철, 2002; Harmon-Jones, Simon, Pyszczynski, Solomon, and McGregor, 1997; Park and Pyszczynski, 2019; Rosenblat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and Lyon, 1989; Solomon, Greenberg, and Pyszczynski, 2015/2016).

공포관리이론은 국외의 논문들을 통해 여러 차례 검증이 이루어졌으며(Greenberg, Solomon, Veeder, Pyszczynski, Rosenblatt, and Kirkland, 1990; McGregor et al., 1998; Rosenblatt et al., 1989), 최근에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그에 대한 지지를 공포관리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등(Cohen, Solomon, and Kaplin, 2017)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심리학계에서는 공포관리이론이 다양한 주제에 적용되어 연구되기 보다는 도덕적 판단(박지선·최인철, 2002), 기부 행동(김재휘·김진희, 2015) 등에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공포관리이론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는 공격행동에 대한 이 이론의 영향을 실험 1과 2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탐구하지 못했던 요인인 기부 수혜자의 집단 소속(내집단 vs. 외집단)을 실험 3에서 직접 조작하여 공포관리이론의 기부 행동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 구체적으로, 실험 1에서는 공격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핫소스 할당량을 사용했던 McGregor 등(1998)의 연구를 토대로 죽음 현저성(mortality salience)과 세계관 위협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다음으로,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속변인을 ‘점수감산 공격패러다임(point subtraction aggression paradigm; Cherek, 1981)’을 통해 측정하여 죽음 현저성과 세계관 위협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실험 3에서는 Jonas, Schimel, Greenberg, and Pyszczynski(2002)의 연구를 토대로 죽음 현저성과 집단소속이 기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죽음 현저성

죽음 현저성(mortality salience, MS)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떠올림으로써 죽음에 대한 생각이 현저해진 상태를 말하고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된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공포관리이론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조건과 다른 주제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통제조건을 주로 비교했다. 많은 연구들은 주로 참가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2가지 개방형 질문(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와 신체적으로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함으로써 죽음 현저성을 조작했고(선민주, 2015; Jonas et al., 2002; Rosenblatt et al., 1989), 이 죽음 현저성 실험 조건은 참가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 식사를 하는 것,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던 경험, 치통과 같은 강한 통증을 경험하는 것 등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하는 통제 조건과 비교되었다(Greenberg and Arndt, 2012).

그러나 이 이론이 처음 제안되었던 1984년 이래로 공포관리이론가들은 죽음 현저성 조건과 가장 적절하게 비교될 수 있는 통제조건을 자신들 스스로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 사용되었던 통제조건이었던 텔레비전 시청과 식사 경험은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여 다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험조건과의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본 연구의 실험 1의 모델이 될 수 있는 McGregor 등(1998)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시험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하는 통제 조건을 사용했는데, 이 통제조건의 사용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불안과 공포와 같은 정서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서가 유발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동양인을 대상으로 공포관리이론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박지선과 최인철(2002)의 연구도 죽음을 생각하게 만든 실험 조건에서는 기존 공포관리이론의 실험들처럼 참가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2가지 개방형 질문에 대해 글을 적도록 했지만, 통제 조건에서는 어떠한 글도 적지 않는 절차를 사용함에 따라 통제조건의 사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공포관리이론에 대한 실증 연구들은 적절한 통제조건으로 치통 조건을 주

로 사용하는데 이 치통조건은 죽음을 생각하게 한 조건과 비교적 유사한 부적 정서를 유발하고 또 글을 쓰는 절차와 몰입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선민주, 2015; Jonas et al.,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치통조건을 통제조건으로 삼아 공포관리이론의 핵심 가정들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2. 문화적 세계관 위협

문화적 세계관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믿음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문화적 가치 기준을 잘 지킴으로써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문화적 세계관이 규정한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자신이 죽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죽은 뒤에도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가치와 체제는 영원할 것이라는 상징적 불멸을 얻을 수 있게끔 한다. 이는 자신의 육체는 없어져도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할 것이며 죽어서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렸을 때 집단 혹은 문화에 속하려고 더 노력한다. 사람들은 집단에 속함으로써 상징적 불멸을 얻게 되는데 이를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신념이나 가치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하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Greenberg and Arndt, 2012).

따라서 공포관리이론에서 ‘문화적 세계관 위협(cultural worldview threat)’은 다른 사람이 가진 신념과 가치로 인해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신념이나 가치가 타당하다는 믿음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세계관 위협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참가자들에게 죽음을 생각하도록 한 다음, 참가자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참가자의 나라를 비판하는 외국인의 평가를 보여줌으로써 문화적 세계관 위협을 조작하였다. 문화적 세계관 위협 조건은 세계관 일치 조건과 비교되는데 세계관 일치 조건은 참가자와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참가자의 나라를 찬양하는 외국인의 평가를 보여줌으로써 조작되었다(Greenberg et al., 1990; McGregor et al., 1998).

자신이 가진 문화적 세계관을 비판하거나 자신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세계관이 위협을 받으면 사람들은 주로 네 가지 방어기제로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방어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관리한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편하 혹은 비하(derogation)”이다. Greenberg 등(1990)의 연구와 McGregor 등(1998)의 연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한 후 기독교인은 유대인을 편하하고 미국인은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폄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는 “동화(assimilation)”인데 이는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이 자신의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자신과 다른 세계관의 매력적인 측면을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에 반영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은 약화시키지 않도록 “조정(accommodation)”하는 것이다. 넷째는 “소멸(annihilation)”인데, 사람들은 폄하, 동화, 그리고 조정만으로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방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위협이 되는 상대를 물리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제거하려고 한다(Greenberg et al., 1990; Greenberg and Arndt, 2012). 이는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이 옳다면 다른 문화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멸 전략은 가장 적극적이고 강한 형태의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이 위협받을 때 소멸 전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멸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세계관 위협의 주효과 가설(가설 1)을 설정하였으며, 상대방의 문화적 세계관이 참가자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조건보다 참가자의 세계관을 위협하는 조건에서 상대에 대한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공포관리이론에 근거를 두고 문화적 세계관 위협의 효과를 살펴본 대표적인 실증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reenberg 등(1990)의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시청 통제 조건을 사용하여,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 또는 텔레비전 시청과 관련된 개방형 질문에 대해 글을 쓰게 했다. 그 후, 자신과 같은 기독교를 믿는 학생과 자신과 다른 유대교를 믿는 학생들을 평가하게 했을 때, 죽음을 떠올리도록 한 실험 조건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이 같은 종교를 믿는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다른 종교인 유대교를 믿어 자신의 신념을 위협하는 학생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했던 통제조건의 참가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추가적인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미국에 관해 극도로 비호의적인 인터뷰, 극도로 호의적인 인터뷰, 혼합적 견해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읽게 하고 이 인터뷰 대상자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죽음을 떠올리도록 한 조건의 참가자가 미국을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제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위협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Rosenblatt 등(1989)의 연구는 판사들에게 매춘부에 대해 보석금을 책정하게 하는 절차를 사용했는데, 통제조건에 비해 죽음이 현저해진 조건에서 판사들이 매춘부에게 유의하게 높은 보석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M=455$ 달러 vs. $M=50$ 달러). 이 연구의 추가적인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잔인한 범죄 사건을 목격한 여성이 위협을 감수하며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여성에 대해 얼마만큼의 보상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했는데, 통제조건에 비해 죽음이 현저해진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여성에게 더 큰 보상을 주려고 하였다($M=3,476$ 달러 vs. $M=1,112$ 달러). 이렇듯,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문화적 가치를 지지하는 영웅에 대해서는 보상하려 하고 도덕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실증적 연구들의 결과는 자신과 다른 신념이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방어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자신과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거나 내가 속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어기는 것은 나의 신념이나 가치를 위협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이나 자존감을 위협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효과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떠올리도록 했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 죽음에 대한 생각이 현저해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사람(영웅, 내집단, 나의 세계관을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사람(도덕적 위반자, 외집단, 나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심지어는 공격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Greenberg et al., 1990; Rosenblatt et al., 1989).

사회심리학계에서 Milgram(1963)의 실험으로 촉발된 연구윤리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위축된 상황에서, McGregor 등(1998)은 공격성에 대한 창의적인 종속변인 측정을 통해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죽음 혹은 중요한 시험에 대해 글을 쓰게 한 후,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에세이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 에세이 저자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에세이 저자가 먹을 핫소스를 할당하도록 하여 공격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죽음이 현저해진 조건에서 참가자들의 문화적 세계관이 일치하는 조건에 비해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조건에

서 더 많은 핫소스를 할당하여 공격행동의 증가를 보여주었고, 통제조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렇듯, 죽음이 현저해진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조건보다 세계관을 위협받은 조건에서 더 높은 공격행동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고 이러한 차이는 통제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상호작용 효과를 가설 2로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실험 1

실험 1은 McGregor 등(1998)의 연구를 토대로 죽음 현저성과 세계관 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죽음 현저성 실험조건과 대비되는 통제조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McGregor 등(1998)이 사용한 통제조건은 중요한 시험에 대해 글을 쓰는 것으로 죽음 현저성 조건과는 비교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시험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죽음에 대해 글을 쓰는 조건과 질적으로 다른 정서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적절한 통제조건인 치통을 주제로 글을 쓰는 조건을 사용하여 죽음 현저성 조건과 비교하였다(선민주, 2015; Jonas et al., 2002). 또한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선민주, 2015)에서 죽음 현저성의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죽음이나 치통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2가지 개방형 질문에 글을 쓰도록 함으로써 죽음 현저성의 조작을 좀 더 강하게 해주었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위협의 효과에 대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두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대상보다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했을 때 참가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대상보다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공격행동을 더 높게 표출하겠지만, 이러한 차이는 치통에 대해 생각하게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1. 연구 방법

1) 참가자

참가자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0명으로 각 실험 조건 별로 10여명을 무선 할당하였다. 5명이 조작 체크 문항에 대해 부주의한 응답을 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총 45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실험 설계

2(죽음 현저성: 죽음/치통) × 2(문화적 세계관: 위협/일치) 완전 무선 요인 설계를 사용하였다.

3) 실험절차

실험의 각 회기에 서로 모르는 두 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다. 먼저, 두 명의 참가자가 한 실험실(A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자는 참가자를 자리로 안내하고 실험의 목적이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실험이라고 알려주었다. 실험자는 두 명의 참가자에게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참가자 중 한 명은 다른 실험실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 주고 한 명의 참가자를 다른 실험실(B실험실)로 안내하였다. 실제로, 두 명의 참가자는 각자의 방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자는 B실험실의 참가자에게 주어진 과제를 지시하고 나와서, A실험실로 다시 들어가 동일한 과제를 지시하는 식으로 동시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여러 에세이 주제들 중에서 조건별로 죽음 또는 치통 주제가 무선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말해 주고, 조건별로 죽음 또는 치통에 관한 에세이를 10분간 작성한 후 이 에세이를 실험 시작 시점에 만났던 다른 참가자와 교환해서 볼 예정임을 알려주었다(이 절차는 참가자가 죽음 또는 치통을 주제로 에세이를 적는 동안, 옆방의 참가자에게는 여러 주제들 중에서 ‘한국인’이라는 주제가 무선적으로 선정되었고 그 사람도 선정된 주제에 대해 나와 동시간대에 글을 적었다는 것을 암시하게 해주는 절차였다). 이 때, 참가자에게 조건별로 죽음이나 치통에 관한 사진을 제시하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함으로써 죽음 현저성 변인을 조작하였다. **죽음 현저성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묘지, 장례식, 운구차의 사진이 각각 한 장씩 제시되면서,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기술하십시오.”, “당신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라는 질문이 제시되었고, **치**

통 통제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치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사진 3장이** 제시되면서, “당신이 강한 치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기술하십시오”, “당신에게 치통이 있을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라는 질문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10분 간 조건별로 죽음 혹은 치통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하고 곧바로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 PANAS 질문지를 3분간 실시하였다. PANAS 질문지를 실시했던 이유는 죽음 현저성 변인의 조작 효과가 즉각적으로 극대화되기 보다는 약간의 시간 경과 후에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최대의 조작효과를 얻기 위해 다소 간의 시간 경과를 두기 위해서였으며(Greenberg and Arndt, 2012), PANAS의 분석 결과는 무의미하여 결과에 제시하지 않았다.

PANAS 질문지 작성이 끝나면 실험자는 참가자의 에세이를 수거하면서, 두 서류를 각 실험실에 있는 참가자에게 주었다. 하나는 문화적 세계관 조건별로 세계관을 위협하거나 참가자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상대방의 에세이였고, 다른 하나는 이 에세이 저자의 전공, 취미, 선호 및 성격에 대해 추정하는 설문지였다. 이 때, 참가자에게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 혹은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다른 참가자의 에세이가 제시됨으로써 문화적 세계관 위협/일치 변인이 조작되었다.

문화적 세계관 위협 조건: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나를 화나게 만든다.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은 계몽되지 못한 미개한 민족이다. 내 몸에 열등한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한국인의 미개함과 열등함은 세계가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 인류에 민폐가 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가 만난 거의 모든 한국인은 유치하고 지적 수준이 낮다. 멍청한 한국인으로 가득 찬 이곳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한국, 한국인, 한글, 한국 문화 그 모든 것이 다 천박하게 느껴지지만 한다.

문화적 세계관 일치 조건: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은 계몽되어 있고 지적 수준이 높은 민족이다. 내 몸에 이렇게 우수한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한국인의 높은 지적 수준과 우수함은 세계가 발전하도록 돕고 있으며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고 총명하다. 내가 만난 거의 모든 한국인은 성숙하고 지적 수준이 높다. 똑똑한 한국인으로 가득 찬 이곳은 희망이 넘친다. 나는 한국, 한국인, 한글, 한국 문화 그 모든 것이 다 세련되게 느껴진다.

참가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실험자는 실험실에 있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설문지를 마친 후에 실험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참가자의 맛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맛 선호 목록표를 작성하게 했는데(단맛, 매운맛, 짠맛, 쓴맛, 신맛에 대해 21점 척도로 본인의 선호도로 표기함), 이 목록표는 다음 단계에서 다른 참가자에게 음식을 할당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참가자가 맛 선호 목록표 작성을 완료하면 이를 수거해 방을 떠났다. 그 다음 실험자는 상대방이 작성한 맛 선호 목록표와 핫소스 할당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여러 음식이나 소스를 할당하는 과제 중 핫소스를 할당하는 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었음을 알리고 작은 스푼을 이용해 핫소스를 맛보도록 하였다. 그 다음,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이전 단계에서 읽은 에세이를 쓴 참가자의 맛 선호 목록표를 보며 그가 먹을 핫소스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핫소스 할당이 끝나면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조작체크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사후 설명을 한 다음 퇴실하도록 조치하였다.

4) 종속 측정치

주 종속측정치는 ‘공격행동의 정도’로 참가자가 자신의 세계관을 위협하는 에세이나 자신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에세이를 읽고 에세이 저자에게 할당한 핫소스의 무게로 ‘공격행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할당한 핫소스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공격 행동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McGregor 등(1998)은 몇 가지의 사건을 언급하며 매운 음식을 먹이는 것이 실제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한 레스토랑에서 요리사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경찰관의 음식에 매운 음식을 타서 한 경찰관은 입에 화상을 입고 한 경찰관은 배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예와 어떤 남성이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먹을 음식에 과도한 양의 후추를 넣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매운 소스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공격행동의 측정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 실험1의 결과

1) 독립변인 조작 효과

죽음 현저성의 조작 효과는 세 문항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글을 적는 동안 죽음 혹은 치통에 관해 얼마나 생각했는지와 그 주제 상황에 얼마나 몰입하였는지를 평가하도록 하

였다(1 = 전혀 아니다, 9 = 매우 그렇다). 글을 적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했는지에 관해서는 죽음 현저성 조건의 참가자들($M=7.19$, $SD=1.25$)이 치통 조건의 참가자들($M=1.75$, $SD=1.22$)에 비해 죽음에 대해 생각한 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다($t_{(43)}=14.73$, $p<.0001$). 글을 적는 동안에 치통에 대해 얼마나 생각했는지에 관해서는 치통 조건(통제 조건)의 참가자들($M=7.38$, $SD=1.31$)이 죽음 현저성 조건의 참가자들($M=1.00$, $SD=0$)에 비해 치통에 대해 생각한 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다($t_{(42)}=-21.68$, $p<.0001$). 마지막으로 글을 적는 동안 얼마나 주제 상황에 몰입했는지에 관해서는 죽음 현저성 조건의 참가자들($M=7.05$, $SD=1.36$)과 치통 조건(통제조건)의 참가자들($M=6.79$, $SD=1.32$) 모두가 중간 정도의 몰입인 5점으로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죽음 현저성 조건: $t_{(20)}=6.90$, $p<.0001$; 치통 조건: $t_{(23)}=6.66$, $p<.0001$). 이러한 결과들은 죽음 현저성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문화적 세계관 위협의 조작 효과는 세 질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먼저, 실험 절차 중 자신이 읽은 에세이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한 참가자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나머지 두 가지 조작체크 문항을 통해 문화적 세계관 위협 변인의 조작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자신이 읽은 에세이의 저자가 한국인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이었는지 혹은 부정적이었는지(1 = 전혀 아니다, 9 = 매우 그렇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계관 일치 조건의 참가자들($M=8.83$, $SD=.39$)이 세계관 위협 조건의 참가자들($M=1.14$, $SD=.35$)에 비해 에세이 저자가 한국인을 호의적으로 생각한 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다($t_{(43)}=69.64$, $p<.0001$). 아울러, 자신이 읽은 에세이의 저자가 한국인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세계관 위협 조건의 참가자들($M=8.73$, $SD=.46$)이 세계관 일치 조건의 참가자들($M=1.13$, $SD=.46$)에 비해 에세이 저자가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t_{(43)}=55.77$, $p<.0001$).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적 세계관 위협 변인의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2)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위협에 따른 공격행동 분석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위협에 따라 공격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죽음 현저성: 죽음/치통) × 2(문화적 세계관: 위협/일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측정치는 참가자들이 할당된 핫소스의 무게인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동의 지표로 사용되었다. 표 1의 조건별 평균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적 세계관 위협 조건과 일치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F_{(1,41)}<1$),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대상보다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던

<표 1> 죽음 현저성과 세계관 위협에 따른 공격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단위: g)

		죽음 현저성					
		죽음		치통(통제)		전체	
		n	M(SD)	n	M(SD)	n	M(SD)
문화적 세계관	위협	11	23.14(14.58)	11	19.67(6.66)	22	21.41(11.20)
	일치	10	19.81(13.87)	13	19.16(6.77)	23	19.45(10.19)
전체		21	21.55(13.99)	24	19.40(6.58)	45	20.40(10.62)

가설 1은 지지되지 못했다. 또한, 표 1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통제조건에서는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한 조건과 세계관이 일치된 조건 간에 평균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M=19.67$ vs. $M=19.16$), 죽음을 생각하게 해 준 조건에서는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한 조건이 세계관이 일치된 조건보다 많은 핫소스를 할당하여($M=23.14$ vs. $M=19.81$) 상호작용의 패턴을 보여 주기는 했지만 유의하지는 못하여($F_{(1,41)} < 1$), 가설 2도 지지되지 못했다.

3. 실험1의 논의

실험 1의 결과는 이전에 제시한 가설들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현저해지면 자신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세계관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던 McGregor 등(1998)의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이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검증한 공포관리이론에 관한 결과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외의 연구들과 달리 죽음이 현저해졌을 때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행동인 ‘공격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포관리이론의 가정을 검증할 때 문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자신의 가치 표현, 개인의 권리와 목표 성취 등 자기 주장의 측면을 강조하는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와 행동 간의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McGregor 등(1998)의 연구에서처럼 상대에게 자유롭게 매운 핫소스를 할당했을 수 있다. 반면에 집합주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단의 목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행동하려고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운 핫소스를 할당함으로써 상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해로운 행위는 하지 않으려 했을 수 있다(한덕용 외, 2005).

아울러, 실험 1에서 가설이 지지되지 못했던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험 절차상의 문제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실험 1은 에세이를 쓴 참가자에게 핫소스를 할당함으로써 공격행동을 측정하였는데 이 종속변인은 우리나라의 정서상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김치’만 먹어도 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에게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상대에게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정도로 매운 음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실험 중에 측정했던 참가자들의 맛 선호 목록표를 살펴보면 21점 척도 상에서 매운맛 선호에 11점 이상으로 평가한 사람이 45명 중 22명이었다. 또한 실험 중에 실제로 핫소스를 매워하는 모습을 보인 참가자가 있었던 반면에 핫소스가 맛있다고 표현한 참가자들도 있었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특성상 핫소스가 상대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자극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핫소스를 할당함으로써 공격행동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전에(핫소스를 할당하기 전에) 핫소스를 할당받을 참가자의 전공, 취미, 선호 및 성격에 대해 추정하게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 절차가 전위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처럼 작동하여(이해영·석동훈, 2017), 공격하고자 하는 생각을 전위시킴에 따라 부정 정서가 해소되어 실제 종속변인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 절차상에서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거나 세계관이 일치하는 에세이를 읽도록 하고 에세이를 쓴 참가자의 전공, 취미, 좋아하는 스포츠, 그리고 성격을 추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참가자들이 부정 정서를 해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예.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집단으로 하는 스포츠는 싫어할 것이고 또 잘 하지도 못해 혼자서 수영이나 할 것이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핫소스를 할당함으로써 공격행동을 측정하기 전 부정 정서를 이미 해소해서 실험 1의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참가자를 모집할 때 같은 회기의 참가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모집하기는 했지만, 참가자의 대부분이 동일한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이었고 실험실에서 서로 얼굴을 본 후 각자의 방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절차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절차는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서로에게 핫소스를 할당하는데 제한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할당된 핫소스가 상대에게 전달될 것이라 알려 주었는데, 참가자들은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같은 수업을 들으며 미

래에 서로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유롭게 핫소스를 할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공포관리이론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을 검증한 McGregor 등(1998)의 연구를 한국인에게 적용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공포관리이론의 공격 행동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실험 1에서 제시한 두 가설은 모두 지지되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실험 절차상의 문제점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험 2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죽음 현저성과 세계관 위협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하고자 했다.

III. 실험 2

실험 1에서는 공격행동의 측정치로 상대에게 핫소스를 할당한 양을 사용하였는데, 핫소스와 같은 매운 음식이 미국인들에게는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 정서를 표출하는 것일 수 있지만 매운 맛을 즐기는 한국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실험 2에서는 공격행동의 측정치로 핫소스 할당량 대신에 ‘점수감산 공격패러다임(point subtraction aggression paradigm; Cherek, 1981)’을 통해 공격 행동을 측정하고자 했다.

‘점수감산 공격패러다임’은 Cherek(1981)에 의해 설계되었는데, 이 패러다임에서 참가자에게는 함께 게임을 하는 상대가 있으며 게임에서 많은 포인트를 얻게 되면 이 포인트는 금전적인 이득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참가자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자신의 포인트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알 수 있고, 포인트가 감소하는 것은 상대가 포인트를 빼앗았음을 의미한다고 알려주었다. 참가자는 자신의 포인트를 지키는 키보드를 누를 수 있고 상대의 포인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키보드를 누를 수 있었다. 단, 상대의 포인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키보드를 누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포인트를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상대의 포인트를 감소시키는 것이 참가자에게 금전적 이득이 되지는 않지만 상대에게는 재정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상대의 포인트를 빼앗는 것은 자신에게는 금전적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재정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공격행동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점수감산 공격패러다임이 공격성 연구에 사용된 한 예로, Reijntjes 등(2013)은 Cherek(1981)의 ‘점수감산 공격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받을 돈에서 일정 금액을 더 주거나 뺄 수 있는 권한을 실험 참가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전위된 공격행동을 측정할 바 있는데, 이번 실험 2에서는 Reijntjes 등(2013)이 사용한 ‘점수감산 공격패러다임’을 변형하여 공격행동을 측정하고자 했다. 실험 2에서 사용한 ‘점수감산 공격패러다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 2의 절차에서 참가자는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거나 자신과 세계관이 일치하는 사람이 쓴 에세이를 읽게 되고 이 에세이를 쓴 참가자가 실험 참여의 대가로 받을 기본 실험료 3천원으로부터 0원에서 3천원 이내의 일정 금액을 더 주거나 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참가자의 권한으로 상대방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최대 6천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할 권한이 주어졌다. 참가자가 상대방의 기본 실험료로부터 일정 금액을 감액한다고 해서 자신이 그 금액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실험료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상대에게 금전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의 기본 실험료에서 일정 금액을 많이 감액할수록 공격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공격 행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 1에서는 세계관을 위협하거나 세계관이 일치하는 에세이를 쓴 참가자에게 핫소스를 할당하기 전에 전공이나 취미 등을 추정하도록 했었고, 이러한 절차가 에세이를 쓴 참가자를 평가하게 함에 따라 부정 정서를 이미 이 평가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제 행동 측정치인 핫소스 할당을 통해서도 공격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 2에서는 에세이를 쓴 참가자에 대해 추정하게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에세이를 읽은 직 후에 바로 에세이를 쓴 참가자가 받을 실험료를 정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1의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참가자의 대부분이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서 미래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공격성의 표출을 막았을 수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 2에서는 참가자에게 다른 방에서 동일한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참가자가 있다는 것을 꾸며서 알려주고 실제로는 한 명씩 개별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 1과 달리 실험 2에서는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를 만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공격 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요약하면, 실험 2의 목적은 실험 1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죽음 현저성과 세계관 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고, 실험 2는 실험 절차의 일부분과

와 공격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를 뿐 문화적 세계관의 주효과 가설(가설 1)과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의 상호작용 가설(가설 2)은 실험 1과 동일했다.

1. 연구 방법

1) 참가자

참가자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0명으로, 각 실험 조건 별로 10명을 무선 할당하였다. 조작 체크 문항을 통해 부주의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했다고 판단된 4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에 사용된 참가자는 총 36명이었다.

2) 실험 설계

2(죽음 현저성: 죽음/치통) × 2(문화적 세계관: 위협/일치) 완전 무선 요인 설계를 사용하였다.

3) 실험절차

실험의 각 회기에는 참가자가 개별로 한 명씩 참여하였다.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자는 참가자를 자리로 안내하고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실험이 진행될 것이라고 실험의 목적을 소개하였다. 먼저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실험자는 실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죽음과 치통 현저성을 조작하였다. 10분 동안의 에세이 작성 이후에, 실험자는 에세이를 수거하고 참가자들의 현재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 PANAS 질문지를 3분 간 실시하였다. 3분 뒤에 실험자는 방으로 돌아와 참가자에게 현재 동일한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의 에세이라고 말해 주면서 조건별로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거나 일치하는 에세이(실험 1과 동일한 에세이를 사용함)를 읽게 하여 문화적 세계관 위협 변인을 조작한 후, 이 에세이를 쓴 참가자에게 줄 실험료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 때, 실험자는 참가자가 결정한 금액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가 금액을 결정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다. 그 후, 참가자들은 조작체크 질문지를 작성했고, 사후 설명을 제공받은 후 실험실을 떠났다.

4) 종속 측정치

주 종속측정치는 참가자가 자신의 세계관을 위협하는 에세이나 자신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에세이를 읽고 에세이 저자에게 줄 기본 실험료 3천원에서 더하거나 뺀 금액을 사용하였다. 에세이 저자가 받을 실험료가 낮을수록 공격행동의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실험 2의 결과

1) 독립변인 조작효과

죽음 현저성의 조작 효과는 실험 1과 동일한 문항(9점 척도)을 통해 확인하였다. 글을 적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했는지에 관해서는 죽음 현저성 조건의 참가자들($M=7.53$, $SD=.26$)이 치통 조건(통제 조건)의 참가자들($M=1.26$, $SD=.81$)에 비해 죽음에 대해 생각한 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했고($t(34)=20.71$ $p < .0001$), 글을 적는 동안에 치통에 대해 얼마나 생각했는지에 관해서는 치통 조건(통제 조건)의 참가자들($M=7.53$ $SD=1.71$)이 죽음 현저성 조건의 참가자들($M=1.00$, $S=0$)에 비해 치통에 대해 생각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t(34)=-15.70$ $p < .0001$), 죽음 현저성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세계관 위협의 조작 효과도 실험 1과 동일한 문항(9점 척도)을 통해 확인되었다. 자신이 읽은 에세이의 저자가 한국인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세계관 일치 조건의 참가자들($M=8.89$, $SD=.46$)이 세계관 위협 조건의 참가자들($M=1.00$ $SD=0$)에 비해 에세이 저자가 한국인을 호의적으로 생각한 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고($t(34)=-70.83$ $p < .0001$), 자신이 읽은 에세이의 저자가 한국인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세계관 위협 조건의 참가자들($M=8.94$ $S=.24$)이 세계관 일치 조건의 참가자들($M=1.00$, $SD=0$)에 비해 에세이 저자가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여($t(34)=142.97$, $p < .0001$), 문화적 세계관 위협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2)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위협에 따른 공격행동 분석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위협에 따라 공격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참가자들이 상대방의 실험료로 할당한 금액을 종속변인으로 삼아 2(죽음 현저성: 죽음/치통) × 2(문화적 세계관: 위협/일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조건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 2에 제시했으며,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세계관 위협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_{(1,32)}=8.77$ $p=.0057$). 표 2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참가자들은 자신과 문화적 세계관이 일치하는 조건($M=3684$, $SD=1634.78$)보다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한 조건($M=1882$, $SD=1866.89$)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실험료를 할당함으로써 더 높은 공격행동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가설 1은 지지되었고, 이는 실험 1과는 다른 결과이다.

둘째,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현저해질 때 참가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대상보다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대상에게 더 높은 공격행동을 나타낼 것이지만 통제조건(치통 조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F_{(1,32)}=.42$ $p=.5194$), 가설 2는 역시 지지되지 못하였다.

<표 2> 죽음 현저성과 세계관 위협에 따른 실험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단위: 원)

		죽음 현저성					
		죽음		치통(통제)		전체	
		n	M(SD)	n	M(SD)	n	M(SD)
문화적 세계관	위협	7	2,071(2,317.12)	10	1,750(1,602.95)	17	1,882(1,866.89)
	일치	10	4,200(1,110.56)	9	3,111(1,980.81)	19	3,684(1,634.78)
전체		17	3,324(1,968.04)	19	2,395(1,875.12)	36	2,833(1,949.36)

<표 3>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위협에 따른 공격행동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p
죽음 현저성(A)	1	4381353.37	4381353.37	1.43	.2400
문화적세계관(B)	1	26825409.31	26825409.31	8.77	.0057**
A×B	1	1297437.28	1297437.28	.42	.5194
오차	32	97828174.6	3057130.5		
전체	35	133000000.0			

** $p < .01$

3. 실험 2의 논의

실험 2에서,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대상보다 세계관을 위협한 대상에게 더 높은 공격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이 연구의 실험 1과는 다른 결과이며, McGregor 등(1998)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문화적 세계관 위협 조작은 한국인을 비하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참가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조작했기 때문에, 참가자가 같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읽고 부정 정서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결과가 실험 1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달리 문화적 세계관 위협 또는 일치를 조작하는 에세이를 읽고 곧바로 공격행동을 측정하였다. 실험 2에서 세계관 위협의 주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실험 1의 논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핫소스를 할당하기 전에 에세이를 쓴 참가자에 대해 추정 또는 평가하게 함으로써 전위된 공격행동의 형태로 이미 부정 정서를 해소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위협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1과 실험 2 모두에서 죽음이 현저해졌을 때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인 ‘공격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검증된 공격행동에 대한 공포관리이론의 주장이 한국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실험 1의 논의에서 공포관리이론을 적용할 때 문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실험 2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더 확고하게 해준다. 실험 1의 논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의 참가자들은 자기 주장적 측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에 따라 공격행동을 더 잘 표현했을 수 있다. 반면에 집합주의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비교적 꺼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험 1과 실험 2에서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위협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한국인의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실험 3에서는 죽음이 현저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던 실험 1과 2의 설계를 확장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이타적인 행동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고찰해 보고자 했다. 실험 2의 결과

(표 2)를 면밀히 살펴보면, 죽음이 현저해진 조건에서 공격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다는 자신과 문화적 세계관이 일치하는 사람에게 자원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해석 될 수 있다. 평균값의 차이로만 추론해 보더라도,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이 위협받을 때는 통제조건과 죽음 현저성 실험 조건 간에 평균차이가 거의 없는 데에 비해(죽음 현저성 조건 2071원 vs. 통제 조건 1750원),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상대에게는 통제조건의 3111원에서 1089원이 상승한 4200원의 실험료 할당액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결과는 죽음이 현저해질 때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사람을 공격하기 보다는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사람을 더 지지하고 도움을 더 주려고 하는 행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상대를 공격하는 행동은 판단하고 결행하기 부담스러운 반면 도움을 주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비교적 판단을 내리고 결행하기 쉬운 행동일 수 있다.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은 해를 끼치는 행동과 질적으로 다를 수 있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행될 가능성에서도 크게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격행동과는 반대로 죽음이 현저해졌을 때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실험 3

실험 3에서는 실험 1, 2와 동일하게 죽음 현저성을 조작했지만, 실험 1, 2와 달리 기부 수혜자의 집단소속(내집단/외집단) 변인을 추가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하나인 기부행동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덕웅(2002)은 ‘집단’을 구성원들끼리 잘 알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구성원들이 동일한 집단에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주로 집단 간의 관계를 다루었던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SIT)은 두 집단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집단 간 배척이 일어남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이란 ‘나는 대학생이다.’처럼 자신을 한 사회범주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범주화 과정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생긴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고자 하는데 외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내집단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듯 집단이 나누게 되면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긍정적인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범주 간의 차이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내집단을 더 편애하게 된다. 요약하면, 사회 정체성이론은 두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내집단을 선호하게 된다고 보았다(Tajfel and Turner, 1979; 한덕웅 외, 2005, p.3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회정체성이론의 내집단 편애 현상은 기부행동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실험 3에서 집단소속의 효과가 유의하리라 예상하고 이를 가설 3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3.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기부 금액이 더 많을 것이다.

공포관리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와 문화 안에서 스스로를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육체는 죽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나 문화는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관리해나간다(Pyszczynski et al., 2015). 이렇듯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이 되고자 하고, 여기에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예. Greenberg et al., 1990; Harmon-Jones, Greenberg, Solomon, and Simon, 1996; Jonas et al., 2002)에서 죽음 현저성이 내집단 편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중에서 기부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다룬 Jonas 등(2002)의 연구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Jonas 등(2002)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죽음 현저성을 조작해 주었을 때 외국인들을 돕는 국제자선단체보다 미국인들을 돕는 미국자선단체에게 더 많은 돈을 기부했고 이러한 차이는 치통(통제)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Jonas 등(2002)의 연구가 집단소속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다루었고 기부금의 수혜자가 본 연구의 실험 3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본 실험 3에서는 Jonas 등(2002)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치통(통제)조건에서는 기부행동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지만, 죽음 현저성이 높아지면 기부행동에 대해서도 내집단 편애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가설 4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4.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했을 때 참가자들은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겠지만, 이러한 차이는 치통에 대해 생각하게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1. 연구방법

1) 참가자

참가자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0명으로, 각 실험 조건 별로 15명을 무선 할당하였다. 조작 체크 분석을 통해 부주의했거나 에세이 주제에 몰입하지 않았던 6명이 제외되고, 총 54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실험 설계

2(죽음 현저성: 죽음/치통) × 2(기부 수혜자의 집단소속: 내집단/외집단) 완전 무선 요인 설계를 사용하였다.

3) 실험절차

실험의 각 회기에는 최대 8명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실험자는 참가자가 도착하기 전 숫자가 적힌 4개의 봉투에 각 과제를 미리 넣어둔 다음, 참가자가 앉을 책상에 올려두었다. 먼저 각 회기의 모든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자는 참가자를 각자의 자리로 안내하고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실험이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이 연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첫 번째 봉투를 열어 10분간 조건별로 죽음이나 치통에 관해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하여 죽음 현저성 변인을 조작하였다(실험 1과 2와 동일한 방법이 사용됨). 실험자는 10분 뒤 참가자에게 두 번째 봉투를 열어 정서 상태를 알아보는 PANAS 질문지를 실시하게 하였다. 그 후, 참가자는 세 번째 봉투를 열어, 아래와 같은 모금 캠페인 시나리오를 읽고 대한민국 혹은 아프리카 아동에게 얼마를 기부할지 결정하게 했다. 이 때, 시나리오 속 아동이 대한민국 아동인지와 아프리카 아동인지에 따라 집단소속 변인이 조작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봉투를 열어 조작체크 질문지를 작성하고 사후 설명을 청취한 후 퇴실하였다.

외집단 조건:

안녕하세요. 자선단체 다모아입니다. 저희 단체는 아프리카의 불우한 가정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과 같이 글을 쓰는 이유는 뚜잇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뚜잇의 어머니는 홀로 두 명의 아이를 키우다가 병에 걸려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뚜잇과 어린 동생은 80세

이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보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할머니는 남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할머니마저 몸이 좋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버는 돈만으로는 어린 남매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고, 옷이나 장난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뚜잇 가족은 도시 변두리 허름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 당장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뚜잇의 가정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철거 압력에도 불구하고 허름한 집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뚜잇 어머니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할머니와 어린 남매는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여러분, 뚜잇 남매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저희 단체는 뚜잇 가족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내집단 조건:

아프리카를 ‘대한민국’으로 뚜잇을 성중립적인 한국 이름인 ‘지수’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문구는 외집단 조건과 같았다.

4) 종속 측정치

주 종속측정치는 ‘기부행동’으로 참가자가 모금 캠페인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에 제시된 대한민국 혹은 아프리카 아동에게 줄 기부 금액(0원부터 100만원 사이)으로 ‘기부행동’을 측정하였다.

2. 실험 3의 결과

1) 독립변인 조작효과

죽음 현저성의 조작 효과는 실험 1과 동일한 문항(9점 척도)을 통해 확인하였다. 글을 적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했는지에 관해서는 죽음 현저성 조건의 참가자들($M=7.55$, $SD=1.21$)이 치통 조건(통제 조건)의 참가자들($M=2.16$, $SD=1.52$)에 비해 죽음에 대해 생각한 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했고($t_{(52)}=14.50$ $p < .0001$), 글을 적는 동안에 치통에 대해 얼마나 생각했는지에 관해서는 치통 조건의 참가자들($M=7.68$ $SD=1.80$)이 죽음 현저성 조건의 참가자들($M=1.34$, $SD=1.08$)에 비해 치통에 대해 생각한 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여($t_{(52)}=-15.96$ $p < .0001$), 죽음 현저성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집단소속의 조작 효과는 세 개의 문항(9점 척도)을 통해 확인되었다. 먼저, 실험 절차

중 자신이 읽은 시나리오에 등장한 아동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관해 올바른 응답을 한 참가자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기부 캠페인 시나리오에 등장한 아동이 자신과 얼마나 동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내집단 조건의 참가자들이($M=7.38$, $SD=1.38$)이 외집단 조건의 참가자들($M=4.03$, $SD=1.81$)에 비해 시나리오에 등장한 아동을 동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한 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했고($t_{(52)}=7.47$, $p<.0001$), 기부 캠페인 시나리오에 등장한 아동이 자신과 얼마나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내집단 조건의 참가자들($M=6.13$, $SD=2.11$)이 외집단 조건의 참가자들($M=3.67$, $SD=1.52$)에 비해 시나리오에 등장한 아동과 동일한 문화를 공유한다고 생각한 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여($t_{(52)}=4.98$, $p<.0001$), 집단소속의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2) 죽음 현저성과 집단 소속에 따른 기부행동 분석

0원에서 100만원까지 기부하고 싶은 금액에 대해 2(죽음 현저성: 죽음/치통) × 2(집단소속: 내집단/외집단)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4에 각 조건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였으며, 표 5와 표 6에 이원변량분석 결과와 단순주효과 분석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소속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50)}=7.83$, $p=.0073$). 예상대로 외집단($M=265,000$, $SD=187,639$)에 비해 내집단($M=481,250$, $SD=343,199$) 사람에게 유의하게 높은 기부행동을 나타내어, 참가자들이 아프리카에 비해 내집단인 우리나라 사람에게 더 기부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이번 실험 3에서는 죽음이 현저해질 때 사람들이 외집단(아프리카) 사람에 비해 내집단(대한민국) 사람에게 더 높은 기부행동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차이는 치통(통제)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분석 결과, 죽음 현저성(죽음/치통)과 집단소속(내집단/외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F_{(1,50)}=5.09$, $p=.0285$), 이를 그림 1로 제시하였다. 그림 1, 표 4 그리고 표 6을 살펴보면, 통제조건(치통 조건)에서는 외집단($M=227,857$, $SD=252,927$) 사람에 비해 내집단($M=645,455$, $SD=297,871$) 사람에게 유의하게 높은 기부행동이 나타났지만, 죽음이 현저해진 상황에서는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기부금액이 감소하여 내외집단 간의 기부금액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고, 이에 따라 가설 4는 지지되지 못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현저해지니 오히려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기부행동이 낮아졌다. 이는 Jonas 등(2002)의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난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음의 논의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표 4> 죽음 현저성과 집단소속에 따른 기부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단위: 원)

		죽음 현저성					
		죽음		치통(통제)		전체	
		n	M(SD)	n	M(SD)	n	M(SD)
집단 소속	내집단	13	342,308(325,862)	11	645,455(297,871)	24	481,250(343,199)
	외집단	16	297,500(319,531)	14	227,857(252,927)	30	265,000(287,639)
전체		29	317,586(317,363)	25	411,600(341,146)	54	361,111(328,861)

<표 5> 죽음 현저성과 집단소속에 따른 기부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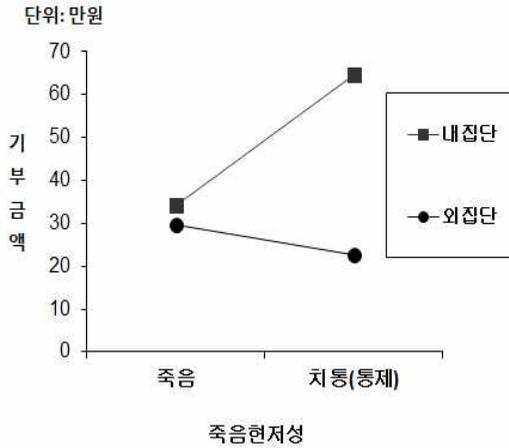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p
죽음 현저성(A)	1	180686580645	180686580645	2.00	.1638
집단소속(B)	1	708569551884	708569551884	7.83	.0073**
A×B	1	460537604853	460537604853	5.09	.0285*
오차	50	4.5246392E12	90492784216		
전체	53	5.7319333E12			

* p < .05, ** p < .01

<표 6> 단순 주효과 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p
죽음 현저성 at 내집단	1	547559003497	547559003497	6.05	.0174*
죽음 현저성 at 외집단	1	36214285714	36214285714	.40	.5299
집단소속 at 죽음	1	14400265252	14400265252	.16	.6917
집단소속 at 치통	1	1.07	1.07	11.87	.0012**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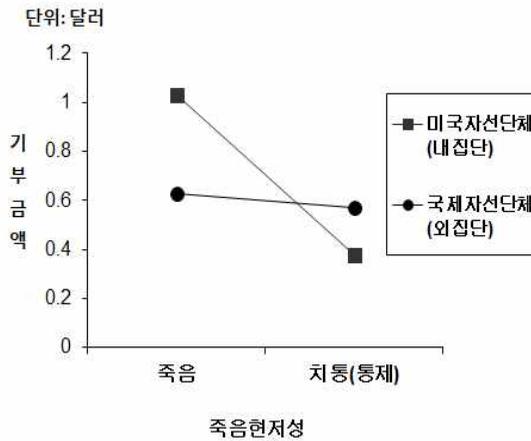


[그림 1] 죽음 현저성과 집단소속에 따른 기부행동(실험 3)

3. 실험 3의 논의

실험 3에서 집단 소속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전반적으로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많이 기부하려는 행동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정체성 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는 집단이 형성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긍정적인 특징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집단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이로 인해 내집단을 더 편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실험 3의 결과는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도 내집단을 더 편애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험 3의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통제 조건(치통 조건)에서는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에게 유의하게 더 큰 기부행동이 나타났으나, 죽음이 현재 해졌을 때는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기부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내외집단에 대한 기부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 중 하나인 기부행동에 대한 공포관리이론의 효과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검증한 Jonas 등(200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림 2] 죽음 현저성과 집단소속에 따른 기부행동(Jonas 등, 2002의 실험 2)

Jonas 등(2002)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연구에 참여한 대가로 1.5달러를 먼저 지급하고, 죽음이나 치통에 관해 글을 쓰게 하여 죽음 현저성 변인을 조작했다. 그런 다음, 대학에서 동시에 후원하고 있는 미국 자선단체와 국제 자선 단체에 관한 설명 책자를 각각 읽어보고 어느 자선단체에 얼마를 기부하고 싶은지 결정하여 연구 참여의 대가로 받은 1.5달러 중 일정 금액을 익명으로 기부하게 하였다. 설명 책자에는 미국 자선단체는 기부금을 저소득층 미국인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국제자선단체는 저소득층 외국인들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실험 결과, 치통 통제 조건에서는 기부 금액에서 미국 자선단체와 국제 자선 단체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죽음이 현저해졌을 때 국제 자선 단체에 비해 미국 자선단체에게 더 많이 기부하는 행동이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 결과는 치통 통제 조건에서 내 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기부행동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죽음이 현저해지면 내 집단 구성원을 위한 기부가 유의하게 줄어들어 내외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된 실험 3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실험 3은 Jonas 등(2002)의 연구와 몇 가지 측면에서만 다르고(Jonas 등의 연구는 집단소속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다루었고 기부금의 수혜자가 한 개인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실험 3은 집단소속을 피험자 간 변인으로 다루

었고 기부금의 수혜자가 ‘뚜잇’과 ‘지수’로 명확히 제시됨), 두 연구의 기본적인 실험 설계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실험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규범(norm)에 의한 설명으로, 이는 Jonas를 비롯한 동료 연구자들(Jonas, Sullivan, and Greenberg, 2013)이 그들의 후속연구에서 스스로 제시한 설명이다. Jonas 등(2013)은 Cialdini, Kallgren과 Reno(1991)의 규범행동의 초점이론(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을 공포관리이론에 접목시켜, 죽음 현저성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결과 될지 아니면 자신의 자원을 확보하는 행동이 결과 될지를 그 상황에서 현저해진 규범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자본주의 문화에서 남을 능가하고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개인적 가치감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반드시 그릇된 세계관은 아니고 죽음이 현저해질 때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문화적 세계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죽음이 현저해질 때 우리는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generosity)이나 자신의 자원인 돈을 보존하려 욕심(greed)을 부리는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든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 방향은 그 상황에서 현저해진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설명에 따라 Jonas 등(2002)의 실험과 본 실험 3의 결과를 해석해 보면, Jonas 등(2002)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후원하고 있는 두 자선단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자선단체와 외국자선단체를 소개했는데 이러한 언급 자체가 도움행동에 대한 규범을 활성화시킨 반면, 본 실험 3에서는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기부 의사결정 상황만을 줌으로써 도움행동에 대한 규범의 활성화 정도가 두 연구에서 크게 달라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또한 Jonas 등(2002)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매우 적은 1.5달러의 돈 중 일부를 기부하게 했고, 본 실험 3에서는 (물론 가상의 돈이었지만) 100만원이라는 큰 돈 중 일부를 기부하게 하는 절차를 사용했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큰 돈의 제시가 의도치 않게 물질주의적인 규범을 활성화시켜 죽음이 현저해짐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더 확보하려는 행동을 낳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불안정감(feelings of insecurity; Fromm, 1976, Maslow, 1954; Rogers, 1964; Kasser and Sheldon, 2000, p. 350에서 재인용)에 의한 설명도 가능하다. 이 설명은 공포관리이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지되는데, Kasser와 Sheldon(2000)은 참가자들에 대한 죽음 현저성 조작에 의해 높아진 불안정감이 돈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행동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검증했다. 그들의 연구 2에서 죽음

현저성이 높게 조작된 참가자들에게서 물질에 대한 욕심과 가상의 자원 딜레마게임에서 자원을 더 소비하려는 경향을 발견함으로써, 죽음 현저성이 돈을 확보하려는 물질주의적 행동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Cozzolino, Staples, Meyers와 Samboceti(2004)도 그들의 연구 3에서 돈과 같은 외적 가치(extrinsic value)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현저성 조작이 그들의 세계관 즉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을 더 강하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했다. 본 실험 3에서도 죽음 현저성 조작이 참가자들의 불안정감을 높이고 이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더 확보하려는 물질주의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실험 3의 상황이 기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남은 돈을 참가자 본인이 가져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죽음현저성 조작에 의해 높아진 불안정감이 비록 가상의 돈일지라도 그 자원을 지키려는 생각을 강하게 만들어 물질주의적 행동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규범에 의한 설명과 불안정감 상승에 의한 설명을 입증하기위해서는 죽음 현저성 조작 후에 규범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불안정감이 높아졌는지 등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실험 3에서는 이와 같은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되지 못했지만, 추후의 연구에서 이 설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V.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세 실험을 통해 죽음 현저성과 문화적 세계관 위협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죽음 현저성과 집단소속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공격행동에 대해서는 죽음 현저성의 영향이 발견되지 못했고, 기부행동에 대해서는 죽음 현저성 조작이 자신이 속한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기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의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1과 2 모두에서 죽음 현저성이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여러 가능한 설명이 있을 수 있으나, 실험 1과 2의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의 참가자들은 자기 주장적 측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에 따라 공격행동을 더 잘 표현했을 수 있는 반면, 집합주의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비교적 꺼렸고 그 결과로 실험 1과 2에서 유의한 결

과를 얻지 못했을 수 있다. 본 연구가 공격행동에 대한 공포관리이론의 국내 첫 적용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실험 3에서 통제조건인 치통조건의 내집단에 대한 기부금액이 평균 65만 원 정도로 다른 조건들에 비해 가장 높는데 반해(그림1 참조),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Jonas(2002)의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것(그림2 참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개인주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통제집단에서 집단소속에 따른 기부에 차이가 없는데 반해, 집합주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의 생활에서도 이미 내집단 편애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문화 모두에서 정확히 동일한 실험설계와 절차를 사용한 추후의 비교문화연구가 이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 3의 결과를 죽음의 현저해질 때 불안정성이 상승하여 물질주의적인 행동이 나오기 쉽고 이 때 명확한 도움행동규범도 부재하면 내집단에 대한 도움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결과는 실무적으로도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 현장의 기부금액을 늘이기 위해서는 죽음을 현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죽음을 현저하게 만드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면 도움에 대한 규범을 함께 활성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시사된다. 물론 본 연구의 실험 3에서는 규범 설명과 불안정성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후속 연구들에서 질문지를 통해 이를 측정한다면 실험 결과의 정확한 해석에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한국에만 독특한 것인지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기부행동에 대한 문화차이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비교문화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실험 3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세 실험 모두에서 참가자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험 1의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실험 1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의 패턴이 보이기는 했지만, 참가자의 수가 부족하여 유의확률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차이 검증에 필요한 조건 당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험 3과 같은 기부행동 실험에서는 돈의 의미에 대한 명확화와 돈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차의 확인을 통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실험 3에서는 기부 캠페인 시나리오에 등장한 아동에게 0원에서 100만원까지 기

부 금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100만원은 참가자들이 실제로 가진 돈이 아니라 100만원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부와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Jonas 등(2002)의 연구처럼 실제 돈을 지급한 후에 이 금액에서 얼마를 실제로 지불할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실제 기부행동을 살펴보는 방향으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실험 3에서는 각 개인이 돈에 대해 가진 태도(예. 돈의 중요성)를 측정하지 못해 돈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별로 분석을 하거나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지 못했다. 미래의 연구에는 각 개인의 돈에 대한 주관적 생각이나 태도를 측정하여 이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미래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의 공포관리이론 연구들에서 죽음이 노인들에게 더 현저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증거는 없지만(Jonas et al., 2013, p. 56에서 재인용), 청년과 노인들 간에 진보/보수성향, 생활패턴 및 가치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과 죽음 현저성이 조작될 때 자신의 세계관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 진보적인 사람들이 더 허용적이라는 연구(Greenberg, Simon, Pyszczynski, Solomon, and Chatel, 1992) 등을 감안할 때, 공격행동과 기부행동에 대해 본 실험 3의 젊은 대학생들과 노인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포관리이론의 주장들을 검증해 보는 것도 미래의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국내 심리학계에서는 공포관리이론을 다룬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제한된 주제(예. 도덕적 판단, 박지선·최인철, 2002; 기부 행동, 김재휘·김진희, 2015)에만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국내에서도 여러 성격변인과 상황변인들이 공포관리이론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고, 죽음 현저성 조작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다른 현상[예. 죽음직전 경험(near death experience),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Cozzolino et al., 2004]을 고찰하고 서로 비교하는 연구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험 1과 2는 공포관리이론의 공격행동에 대한 국내 첫 적용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실험 3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던 기부 수혜자의 집단 소속(내집단 vs. 외집단)을 실험에서 직접 조작하여 공포관리이론의 기부 행동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격행동과 이타적 행동을 포함하여 심리학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공포관리이론의 적용이 국내에서 더 이루어져, 국내 사회심리학계에서 공포관리이론을 좀 더 조명하고 이 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욱·이현승. 2015. “죽음 현저성, 흡연의도, 그리고 세계관 방어 - 금연광고 효과에 대한 공포관리이론의 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11(1): 94-143.
- 김재휘·김진희. 2015. “죽음을 연상시키는 기부 캠페인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 《광고학 연구》 26(5): 27-57.
- 박지선·최인철. 2002.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훌륭한 시민으로 만드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75-89.
- 선민주. 2015. “태도 유사성, 집단소속 및 죽음 특출성이 대인 매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석동현. 2017. “평가피드백,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및 익명성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41(1): 209-231.
- 한덕웅. 2002. 『집단행동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덕웅·성한기·강혜자·이경성·최훈석·박군석·김금미·장은영. 2005.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Cherek, Don R. 1981. “Effects of smoking different doses of nicotine on human aggressive behavior.” *Psychopharmacology* 75: 339-345.
- Cialdini, Robert B., Carl A. Kallgren, and Raymond R. Reno. 1991.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A theoretical refinement and reevaluation of the role of norms in human behavior.” pp. 201-234.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ited by M. P. Zanna. San Diego: Academic Press.
- Cohen, Florette, Sheldon Solomon, and Daniel Kaplin. 2017. “You're hired! Mortality salience increases Americans' support for Donald Trump.”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17(1): 339-357.
- Cozzolino, Philip J., Angela D. Staples, Lawrence S. Meyers, and Jamie Samboceti. 2004. “Greed, death and values: From terror management to transcendence management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3): 278-292.
- Fromm, Erich. 1976.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and Row.
- Greenberg, Jeff, and Jamie Arndt. 2012. “Terror management theory.” pp. 398-416. in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Volume 1.*, edited by P. Van Lange, A. Kruglanski, and E. T. Higgins. London: SAGE Publication Ltd.
- Greenberg, Jeff, Tom Pyszczynski, and Sheldon Solomon. 1986. “The Causes and

-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pp. 189-212. in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edited by R. F. Baumeister. New York: Springer-Verlag.
- Greenberg, Jeff, Tom Pyszczynski, Sheldon Solomon, Abram Rosenblatt, Mitchell Veeder, Shari Kirkland, and Deborah Lyon. 1990.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threaten or bolster the cultural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308-318.
- Greenberg, Jeff, Linda Simon, Tom Pyszczynski, Sheldon Solomon, and Dan Chatel. 1992. “Terror management and tolerance: Does mortality salience always intensify negative reactions to others who threaten one's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2): 212-220.
- Harmon-Jones, Jeff Greenberg, Sheldon Solomon, and Linda Simon. 1996.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intergroup bias between minimal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4): 677-681.
- Harmon-Jones, Eddie, Linda Simon, Jeff Greenberg, Tom Pyszczynski, Sheldon Solomon, and Holly A. McGregor. 1997. “Terror management theory and self-esteem: Evidence that increased self-esteem reduces mortality salience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24-36.
- Jonas, Eva, Jeff Schimel, Jeff Greenberg, and Tom Pyszczynski. 2002. “The scrooge effect: Evidence that mortality salience increases prosocial attitudes and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0): 1342-1353.
- Jonas, Eva, Daniel Sullivan, and Jeff Greenberg. 2013. “Generosity, greed, norms, and death: Differential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charitable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5: 47-57.
- Kasser Tim, and Kennon M. Sheldon. 2000. “Of wealth and death: Materialism, mortality salience and consumption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11(4): 348-351.
- Maslow, Abraham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McGregor, Holly, A., Joel D. Lieberman, Jeff Greenberg, Sheldon Solomon, Jamie Arndt, Linda Simon, and Tom Pyszczynski. 1998. “Terror management and aggression: Evidence that mortality salience motivates aggression against worldview-threatening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590-605.
- Milgram, Stanley. 1963.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4): 371-378.
- Park, Young Chin, and Tom Pyszczynski. 2019. “Reducing defensive responses to thoughts of

- death: Meditation, mindfulness, and Buddh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6(1): 101-118.
- Pyszczynski, Tom, Sheldon Solomon, and Jeff Greenberg. 2015. “Thirty years of terror management theory: From genesis to revelation.” pp. 1-70.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ited by J. M. Olson and M. P. Zanna. San Diego: Academic Press.
- Reijntjes, Albert, Sander Thomaes, Jan H. Kamphuis, Brad J. Bushman, Ellen Reitz, and Michael J. Telch. 2013. “Youths' displaced aggression against in-and out-group peers: An experimental exami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5(1): 180-187.
- Rogers, Carl R. 1964. “Toward a modern approach to values: The valuing process in the mature pers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 160-167.
- Rosenblatt, Abram, Jeff Greenberg, Sheldon Solomon, Tom Pyszczynski, and Deborah Lyon. 1989.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violate or uphold cultur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81-690.
- Solomon, Sheldon, Jeff Greenberg, and Tom Pyszczynski. 2015. *The worm at the core: On the role of death in life*. (이은경 역. 2016. 『슬픈 불멸주의자』. 서울: 흐름출판.)
- Tajfel, Henri, and John C. Turner.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pp. 33-48.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W. G. Austin and S. Worschel. Monterey CA: Brooks/Cole.

(2020. 2. 15. 접수; 2020. 3. 12. 수정; 2020. 3. 27. 채택)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Cultural Worldview Threat and Group Membership on Donation and Aggression

Lee, Seul-Bi

Daegu University

Seok, Dong-Hoon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cultural worldview threat and group membership(i.e., ingroup vs. outgroup) on donation and aggression using 3 experiments. To manipulate mortality salience, participants was asked to write a short essay about their own death. Participants in the corresponding control condition had to write an essay on their dental pain. Cultural worldview threat was manipulated by providing fictitious essays of other person which disparaged or praised Koreans and Korean culture. Group membership was manipulated by presenting a donation campaign scenario in which the beneficiary was an African child or a Korean child. Experiment 1 and 2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and cultural worldview threat on aggression. As a result of experiment 1 and 2, the main effect of worldview threat was significant in Exp. 2, but the interaction effect of mortality salience and worldview threat was not significant in all two experiments. Exp. 3 examined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and group membership on donation. As a result of Exp. 3, the interaction effect of mortality salience and group membership was significant. That is, in the dental pain condition(i.e., control condition), participants tried to donate more money to the members of ingroup compared to the members of outgroup, but when their mortality became salient, participants tried not to donate their money to the members of ingroup and as a result the amount of money donated in the mortality salient condit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group membership. The result of the Exp. 3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Jonas et al. (2002) and possible explan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Terror management theory, Mortality salience, Cultural worldview threat, Group membership, Donation, Aggression